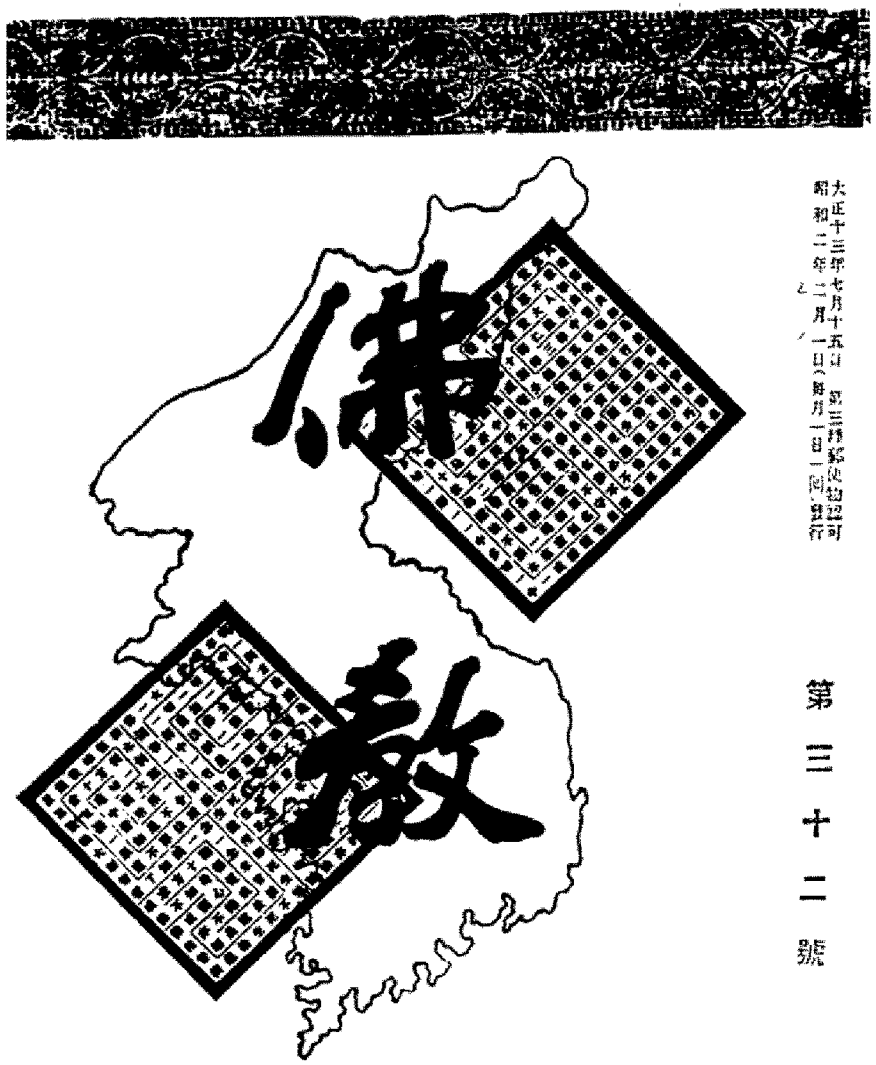
THE BUDDHISM



大正十三年七月十五日 第三種郵便物認可
昭和二年二月一日(毎月一日一回)發行

第三十二號

百雜碎

□新年을마지합헤하다 恒常우엇이새로운듯 무엇을새로할듯 하여맛지마는 日常에자세이잡식이라 지내노으면 도로別수업시는마찬가지엇다

□人落라는것은 天時에도 地理에도 物情에도 아조關係가업는것이지마는 그래도 엇던方面으로보이서는 그럿것갈파 아조緊着한關係가잇는것도가라보인다

□關係가업다면 그만이지마는 萬一關係가잇다고假定할것가트면 雖男雖孀하는 일(實)헤에도 아조特色이업섯는데 하물며 乘順緣少한 로시(朔)로됴엿스니 무엇을한단말인가

□그러나 柔能勝剛이라는古語도잇지마는 事實上 强한者에게만 勝利가잇는것이아니라 弱者의게도 더빗나는月桂冠이도라갈수도잇다 항일動으로하야敗興이되엿거든 靜으로써收拾하야보자

□記者도 「百事無成 又添一歲」하야 멀서歲旦玉의知非의年을當하엿다마는 冥頑이極한者로도 過去의一步一念이悔非이엇것을 알겟다 動이잇動, 靜에잇靜, 이는것이非아니라 「六六宮都是七七疑非非」라는一句로서몰아지를뿐이다

□元旦의晩頭에 「佛敎世界」라는제목두아래問하여온다 이것은新年에第一喜消息이다 나의個人뿐이아니라 全朝鮮佛敎로 아니 題目과가치 「世界佛敎」로도 一寧馨兒가되지를 屠蘇酒一盃로 빌드리엇슴한다

投稿及送金規定

一、範圍 政治의範圍를脫하고敎理와直接間接으로關係잇는者

一、期限 每月十日以內

一、註記 住所와姓名을明記하시며或匿名을要하실지라도本社에는明示하시압

一、權限 投稿者의意思를尊重하나本範圍內에서載, 停, 評, 訂할權利는本社에讓하시압

一、往復 問議又는質問等返信을要하는通信에는返信料를添付하시압

一、送金 必히左의振替口座를利用하시압
振替口座京城一三六四七番
加入者氏名 財團法人朝鮮佛敎中央敎務院

昭和元年十二月二十八日 印刷
昭和二年一月一日 發行
「佛敎三十一號定價二十錢」(送料不要)
京城府藤松洞八十二番地
編輯兼發行人 權相老
京城府堅志洞三十二番地
印刷人 魯基祿
京城府堅志洞三十二番地
印刷所 漢城圖書株式會社
京城府藤松洞八十二番地
(財團法人朝鮮佛敎中央敎務院內)
發行所 佛敎社
電話光化門一〇二二番
振替口座京城一三六四七番